

97년 이후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키치적 요소에 관한 연구

양은록* · 김숙진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석사졸업* ·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산업화된 현대 사회의 다양한 대중 문화 속에서 새로운 미적 가치를 지니며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키치(kitsch)는 기성세대의 사고 방식을 부정하고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파괴라는 형태를 통해서 자신을 부각시키는 미적 부적절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키치의 대중적인 취향과 미적 특성의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97년 이후의 키치적 요소의 헤어스타일을 분석하였다.

97년 이후의 키치적 요소의 헤어스타일의 특성은 풍자성, 유희성, 향수성, 부조화성으로 분류 고찰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키치적 요소의 헤어스타일에서의 풍자성은 풍자 대상의 허위와 거짓을 폭로하고 비판하기 위해 그 대상을 과장하고, 희화시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단순한 유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 문제, 사회 이슈, 종교적 비판에 대한 목적으로 현대 사회 속을 풍자적인 방법으로 표현했다. 풍자성을 헤어스타일로 표현하는 특징으로는 군 모자의 사용, 컬러 스프레이, 비잔틴 문양의 헤어장식, 밝은 염색머리 등의 상징적 오브제를 사용하였다.

유희성은 키치적 요소의 헤어스타일에서 유아적이고 팝 아트적인 유머의 즐거움을 유희적인 단순성의 자유로운 감각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경향은 가볍고 즐거운 유희적인 감정들이 혼합되어 익살스런 모습과 혼합의 새로움을 창조하는 유희적인 특성으로 전개된다. 유희성을 헤어스타일로 나타내는 특징으로는 헤어스타일에 놀이 기구인 풍선과 유아적인 헤어밴드, 스킨헤드, 만화적 기법 등으로 표현되어진다.

향수성은 고도성장으로 인해 많은 인간 내면의 정신세계가 병들어가고, 자신이 처해있는 현실에서 탈피하여 과거나 다른 세계에 대한 망막한 기대 심리를 복고풍이나 동방풍, 전원풍의 이국적으로 표현하였다. 헤어스타일에서의 향수성은 어렸을 때의 향수를 자극하는 방울 달린 모자, 비너 등의 다양한 오브제의 사용으로 표현되어진다.

부조화성은 전통적인 비례와 조화를 의도적인 방법으로 부정한 새로운 감각의 형태로, 헤어스타일을 통한 성의 구분이나 기본적인 컷의 방법에서 벗어나 균형을 변화시키고 파괴하여 헤어스타일에 대한 미학적 관념을 부적절성으로 표현한다. 헤어스타일에서의 부조화 표현은 부조화스런 배치, 가모의 사용, 변형 컷, 금속성 소재 등 다양한 오브제의 사용으로 나타난다. 부조화는 억압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파격적인 형태의 의미를 주며 고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난 창조적인 기법으로 전위적인 감각을 시도한다.

이상과 같이 키치적 요소의 헤어스타일의 미적 특성은 비합리적인 형태와 절충주의적 양식을 통해 인간의 자유로운 감성표현으로 나타남으로써 과거의 미적 관념에 대한 모순적인 형태와 특성으로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생활에서 키치는 지금 우리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키치와 결합된 인간의 행동양식은 이 시대 모든 문화와 예술영역 속에 적용되어 다양성을 추구하고, 새로운 미의 영역인 헤어스타일에서도 창조적인 미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